

순창조씨의 뿌리

② 주요세거지와 변천

1. 순창조씨의 관향. 淳昌

순창조씨의 관향인 淳昌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록이나 고증할 자료가 없어 선조의 산 곳 또는 살아온 내력을 짐작하기 어렵다. 그러나 모든 성씨의 관향은 대부분 시조나 중시조의 출신지 아니면 정착한 세거지를 근거로 해서 호칭하여온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 보아 순창이 순창조씨 최초의 세거지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시조 趙子長과 2世 趙先賢은 戶長을 3世 趙溫과 4世 趙元軾은 향직인 甫尹을 대를 이어 지낸 점으로 보아 4세까지는 순창 한 곳에서 세거한 것이 분명하며 5世 趙仁平의 손록에 의하면 "고려 명종 7년(1177)에 亡金과 亡鶴을 도망하는 등 궁궁일대에 올라, 향리를 떠나 관직에 들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이때부터 고향 순창을 떠나 관직에 따라 사는 곳을 옮긴 것으로 예측한다.

참고 1. 淳昌은 현재 전라북도 군소세지이다. 백제 때는 道實郡이요 신라때는 淳化郡이라 하였다. 고려조에 와서 淳昌縣으로 개칭하고 南原郡에 속하였으며 충숙왕 원년(1314)에 郡으로 승격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2. 玉川은 순창의 별호이다. 순창에는 옥이 나왔다는 玉山出이 있고 순창읍에 흐르는 玉川과 玉川洞이 있다.

3. 순창에 세거하는 玉川府院君(趙元吉) 파의 옥천 조씨와 평택 등지에서 세거하여 온것으로 알려진 淳昌府院君파는 순창조씨와 같은 뿌리라고 추측은 하나 확실하게 고증할 근거가 없어 동근동종의 뜻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2. 순창조씨의 世居之鄉인 文貞公 탄생지, 槐山 松坪

괴산, 송평은 순창에 이어 순창조씨의 두번째 세거지이다. 7世 趙文琓(大護軍公(1263-1332)행보에 의하면 "가택이 괴산군에 있으니 제 4촌 紳(避世公)의 자

순창조씨의 뿌리는 책자발간에 앞서 씨족사 정립을 위해 미진한점을 보완하고자 편집중인 재료를 우선 여기에 게재하니 많은 고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손에게 전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순창조씨가 괴산에 사는것은 이로부터 시작이라고 본다. 또한 8世 趙廉(文貞公(1293-1346) 신도비문에 "택사 한자리가 공이 탄생하시였다고 하는 곳이 괴산. 송평에 있으니 군에서 남쪽으로 십리쯤 된다"라고 하였으니 文貞公께서 서기 1293년에 탄생 하신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후 9世 趙紳(避世公(1324-1402)께서 고려가 망하자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켜 서기 1392년 고향인 괴산 송평으로 낙향하여 피세정을 세우고 은둔한 이래 대를 이어 계속 이곳에서 세거하다가 15世 趙勝(安士堂(1517-1584)의 후손은 安村, 雙谷, 池谷, 開慶, 箕城, 利安, 城宗, 品谷, 清安, 文等, 東幕, 鎭川, 八松 등에 퍼져 살고 15世 趙服(威安公(1525-1592)의 후손은 獐村, 梨谷등에 살고, 15世 趙參(參判公(1528-1593)의 후손은 三顛, 甲山, 松岷, 元忠, 沼岩, 閑溪, 樂村, 杏亭, 佳州, 塔洞, 麻田 등에 각각 정착하여 집성촌을 이루어 왔다.

이와같이 괴산 송평은 서기 1290년경부터 700여년간 24대에 걸쳐 순창조씨가 대를 이어 살아온 유서 깊은 곳이다. (1830년경부터는 행정과가 세거하여 왔음) 700성상동안 순창조씨 문중의 애환을 관직에 은행나무와 文貞公, 良度公, 避世公의 단산소를 비롯해서 누대에 걸친 묘소, 문정공 신도비, 그리고 오마산 기슭의 600년 역사를 간직한 피세정과 문중에서 배출한 일급문 출신의 사당인 칠층사가 있다.

3. 고려때는 開城, 이조때는 서울등에서 살아온, 宗家

11世 趙頊(1406-1473)의 묘지에 의하면 "비로소 松京으로부터 漢城으로 옮겨서 관품에 의한 집터를 駝駱洞에 받아 가택을 세워 종손에게 전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9世 趙縵(良度公)을 비롯해서 그 후손은 한시대 관직에 따라 고려때는 개성에 이조때는 서울에서 살다가 점차 驪州, 淸州, 平澤등지에 퍼져 살게 되었다.

4. 대종손 계파의 세거지, 平澤 奈川

평택은 순창조씨 대종손계파의 세거지로서 병자호란(1636)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6대에 걸쳐 약 400년 동안 대를 이어 살아 왔다(평택파). 효행과 우애의 본보기인 19세 趙一韓(丞旨公(1621-1701)의 행장에 의하면 “팔순이 가까운 조모남씨를 모시고 병자호란을 피하였다”라고 명시된 점으로 보아 이때부터 평택에 순창조씨가 정착하여 세거하게 되었으며 점차 瑞山, 陽智, 砥平, 海美 등에 퍼져 살아 왔다.

5. 한시대 기라성같은 인재를 배출한, 驪州

여주에는 서기 1500년경부터 현재까지 20대에 걸쳐 약 500년동안 순창조씨가 대를 이어 세거하여 왔다(여주파) 13세 趙演(司成公(1533졸)의 묘지에 의하면 “여주에 순창조씨가 있는 것이 이로부터 시작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이때부터 여주에 자리잡아 세거하게 되고 점차 丹陽, 醴泉, 尚州 등지에 퍼져 살아왔다. 또한 여주는 석학거유인 趙壽益(晚閣堂公)과 孝宗大王의 사부 趙壽恒(一間齊公) 그리고 학자로서 명신록에 등재된 趙胃一(丹邱子公) 등 한시대 기라성 같은 인재를 배출하여 순창조씨 문중을 크게 빛나게 한곳이기도 하다.

6. 진천현감공 퇴관후 자리잡은, 淸州 梧倉

청주, 오창에는 서기 1600년경부터 현재까지 18대에 걸쳐 약 400년간 순창조씨가 대를 이어 세거하여 왔다. (청주파) 14세 趙伸(鎮川縣監(1566-1613) 傳보에 의하면 “관직을 물러난후 명리에 뜻이 없어 청주 오창에 퇴거하시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이때부터 순창조씨가 이곳에 자리잡아 세거하여 왔다.

7. 주요 집성촌

평택군 서탄면 내천리(평택), 청원군 오창면 모정리(청주), 예천군 용문면 방송리(예천),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인촌), 괴산군 문광면 대명리(지곡),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행정), 괴산군 문광면 신기리(탑동), 충원군 이유면 장성리(성종), 충원군 노은면 수흥리(팔송), 음성군 소이면 금고리(삼고), 음성군 소이면 충도리(송현, 원충, 갑산)

참고 1. 순창조씨는 단일세계로 내려오다가 9세에 이르러 양도공과 피세공파로 분리되나 피세공파는 12세에 와서 양도공의 증손 趙愨(동태공)의 입양으로 대를 이어 왔다.

2. 현재 지칭하는 38개파(派)는 세거지의 변천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편의상 각기 직조의 정착한 지명을 호칭하고 있다.

(편찬한 사람 대종회장 조덕선)

문정공, 양도공, 피세옹 시제 거행

마전 瑠柱 고등고시합격을 고유(?)하고 예천에서는 단체로 참사

문정공, 양도공, 피세옹, 진사공, 송계공의 시제가 종친 약 60여명 참사리에 11월 14일 괴산 아미동재실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특히 이날 마전 元滉종친은 아들을 대동하고 참사하여 瑠柱군공의 고등고시합격을 고유(실은 잔만 올렸음)하는 아름다운 광경이 있었으며 예천에서는 단체로 참사하고 풍곡 寬善종친은 전가족을 동반 참사하는 성의를 보였다. 시제가 끝난 다음 根植사무극장 진행으로 인원과 종친들의 인사가 교환되고 德善회장으로 부터 설단의 유래, 선조의 유덕과 위선사례, 대종회의 당면과제 등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행정과 친목회 결성

회장에 趙泰潤

행정과 친목회가 50여세대 150여명 참석리에 지난 8월 8일 괴산 송평에서 성대하게 결성되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회칙을 통과시키고 회장에 泰潤(대종회 재정이사) 부회장에 昌湜(청주) 총무에 泰國(청주)을 선출하였으며 정기총회는 매년 8월 둘째주 일요일로 하고 회비는 1년에 호주당 1만원으로 결정하였다.

(행정과 친목회 총무 趙泰國 자료제공)

선조의 산소관리 有感

- 대종회장 조덕선 -

올해 괴산과 양주시제에 참사하여 선조의 산소 관리상태를 보고 실망과 후손으로서의 부끄러움을 금할길이 없다. 다 무너져가는 봉분, 잔디 하나 없는 벌거숭이 산소, 글씨하나 보이지 않고 무너져가는 석물 등등... 비록 인륜은 땅에 떨어지고 시대는 변해가도 조상없는 자손은

있을 수 없다. 세보서문집 16항 "서산선영기"를 보면 우리 조상들은 선영관리를 위해 피눈물나는 정성과 노력을 기우렸음을 알 수 있다. 우리 후손도 이를 본받아 다같이 각성하고 힘을 모아 위선하는데 더 큰 관심을 기우렸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서산공산소지역, 만경현령산소, 삼화현령산소, 송계공산소 등) 또한 피산 아미동의 역장으로 인하여 해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반독도 이계 매듭지어져야 한다. 화합차원에서 증지를 모아 합리적인 해결로서 이 부끄러운 추태를 더이상 후손들에게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또한 간절하다.

丹邱子公(휘胄一) 묘소 이장

- 단양파 대표대의원 趙永秀 앞장서 -

20세대 天命圖解 등의 저서를 내고 문장이 당시에 뛰어난 이조명신 21세 丹邱子(휘胄一)의 묘소를 1993. 4. 13. 원주로부터 여주군 가남면 금당리 선영하로 이장하였다. 묘소가 있는 산이 타인에게 넘어가고, 위도, 묘소 관리유지, 시제 등에 문제가 있어 물심양면으로 단양파 대표대의원 趙永秀 증친의 주선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니 그 위선하는 마음 높히 평가할만 하다.

고등고시 합격 축하연 개최

단양 趙一榮 양(永玖 장녀)

마전 趙裕柱 군(元湜 2남)✓

- 청주증친회(회장 趙泰燮) 주최로 -

칠천관기의 역경속에서 고등고시에 합격한 趙一榮 양(31회)과 趙裕柱 군(35회)에 대한 축하연이 청주 증친회 주최로 1993. 11. 19 청주공단 스포츠장비점에서 있었다. 이날 대증회에서 회장, 사무국장, 총무가 참석하고 총무에서 泰一, 永秀, 음성에서 鉉禹, 가족대표 元湜과 청주증친회원 4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기념패와 격려금 전달 등이 있었다.

성종 趙泰東 50만원 찬조

- 행정 趙倉柱도 5만원 -

불우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을 삶의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오늘도 10명의 장학생을 돌보며 성남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증친이 있으니 그가 바로 趙泰東이다. 그러나 한편 객지에서 외롭게 살다보니 일

가친척은 멀어져, 허전한 마음 금할길 없던차 성종, 趙洪植 증친을 통하여 비로서 연결이 되어 시제에 참석코자 피산 송평까지 갔으나 장소변경으로 참석지는 못하고 대증회에 찬조금 50만원을 자진 송금하였으며, 제경이사회 참여의사까지 표명하니 성실한 한사람의 증친을 찾은 것이 백만근을 얻은듯, 기대 또한 크다.

증친의 동정

※ 원고 제출 환영합니다.

① 지곡 趙炳院 공학박사(한대교수)✓

고 趙弘柱 증친의 넷째아들로서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1988년 4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양대학 공과대학 토목학과 교수로 재직중임.

○ 갑산 趙麟植 청주병원 내과과장 ✓

내과전문의로서 청주증친회의 친목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여 청송이 자자하다. 명년 1월 내과의원 개원 예정이라고... (전화 : 0431-52-3101~5)

(청주증친회 총무 趙俊植 자료제공)

○ 전 대증회 고문

지곡 趙弘柱 증친 별세

대증회 고문을 역임하고 칠천사건립, 세보편찬 등 종사에 많은 공이 있는 弘柱 증친께서 수환으로 1993. 11. 15 별세. 향년 74세.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증친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갑술년 새해 아침

순창조씨대증회

명예회장 : 趙 鏞 樂

회 장 : 趙 德 善

부 회 장 : 趙敬植, 趙永達, 趙吉相

趙洪湜, 趙泰年, 趙泰一

趙鏞日

사무국장 : 趙 根 植

총무부장 : 趙 明 湜

재무부장 : 趙 燦 基

조직부장 : 趙 泰 雄

문화부장 : 趙 明 湜

감 사 : 趙文勇, 趙俊湜

회비내는 작은정성 대중회의 초석된다

우리 대중회는 불행하게도 중재가 없습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입장에서 년 5천원의 회비(90, 91, 92, 93년 4년 회비 2만원)마저 외면하는 종친이 계신다면 섭섭한 일입니다. 우리 다같이 회비납부에 동참합시다.

송금구좌	우체국 농협 국민은행	011775-0046769-11 067-01-221618 025-01-0315-181	조덕선
------	-------------------	---	-----

※ 입금자 이름과 파를 필히 명시 바랍니다. 같은 이름이 많아서 파를 명시하지 않으면 회비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회비 및 찬조금 총괄표

회비 납부 기간	납부인원	금액	찬조금	계
93. 3. 31 - 93. 7. 31 (회보 2호) (제 3호)	147명	2,940,000	30,000	2,970,000
93. 8. 1 - 93. 11. 30 (회보 3호) (제 4호)	111명	2,165,000	550,000	2,715,000
계	258명	5,105,000	580,000	5,685,000

94. 1. 20 在京理事會
(時與林務局長이이귀會院了結)

회비를 납부한 종친명단 (全榜)

(93. 8. 1 ~ 93. 11. 30)

평택지평	송	규	병	인	범	식	등	막	원	총	회	비
용무병	봉	제	병	갑	태	복	남	주	태	득	(20,000×107)	
병기	찬	규	병	구	창	주	(5,000)	태	세		(10,000×1)	
수기	홍	규	여	주	태	천	칠	주	(5,000)		(5,000×3)	
호연	석	규	언	상	태	민	진	천	문	등	인원 : 111명	
예주	홍	규	문	경	태	갑	차	선	화	태	금액 :	
문주	현	배	영	태	영	주	삼	선	태	익	2,165,000	
병언	장	규	기	실	우	식	소	암	팔	승	찬	조
평기	운	규	태	천	태	인	근	식	천	식	성종, 조태동	
용익	상	배	태	규	태	인	삼	고	범	식	✓50만원	
현기	세	규	창	선	탈	동	태	승	태	일	행정, 조창주	
석기	한	규	이	안	길	주	필	선	태	범	5만원	
성주	원	규	관	식	득	주	가	주	문	식	계 : 550,000	
용건	영	지	곡	성	중	남	영	주	품	극	합	계
용문	병	곤	승	선	오	주	성	주	현	기	2,715,000원	
남기	규	병	완	민	식	관	주	경	주	불	명	자
용주	광	식	행	정	성	주	마	전	철	선(은)		
용만	규	택	주	길	주	화	영	식	(5,000)			
양주	효	주	정	호	호	근	주	중	금	용	규(채)	
(10,000)	규	병	국	효	선					명	릴(농)	

※ 회보 2호중 다음사항을 바로 잡습니다.

1. 청구주 태형은 지곡과 태형임.
2. 파불명자 조충웅은 청구주 태근임.

3. 해미와 영섭은 예천과 영섭임.
4. 팔송과 김제는 금식의 잘못임.